

은행 (비중확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발표: 중금리대출 시장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카카오(카카오은행), KT(케이뱅크)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금, IT 기반의 자산관리서비스 등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경쟁자 및 차별화된 사
업모델 출현으로 은행간 경쟁은 불가피하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발표

- 전일 금융위는 카카오(카카오은행), KT(케이뱅크)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는 은행업 영위를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뒤,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 본인가 후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영업을 시작.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엔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예정
- 은행법 개정 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2단계 추진 예정이며 법 개정시 2~3곳 추가 인가할 계획

중금리대출 시장 확대

-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거래 특성상 기업의 여·수신 기능보다 개인의 여·수신 기능에 특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개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수익성이 낮고, 시중은행 대비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은 환경.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초기 Target 시장은 개인신용대출 부문이 될 전망
- 특히 Big Data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용평가기법 도입으로, 대출 시장의 Niche Market인 중금리 대출 시장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 국내 높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계약직 비율 등을 감안시 잠재 수요는 풍부
- 실제 카카오, KT 컨소시엄 모두 중금리대출 시장 진출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발표. 중금리대출 외에도 간편결제·송금, IT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할 계획

중금리대출 시장 성공의 Key는 Credit risk관리

- Big Data 중심의 새로운 신용평가기법 도입에도 시스템 안정화 단계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 초반 수익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 구축비용, 브랜드 인지도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 지출 등이 예상됨에 따라 credit risk 관리가 중금리대출 시장 성공의 핵심이 될 전망. 실제 해외 인터넷전문은행도 설립부터 흑자전환까지 평균 4~5년 소요
- 결국 설립 초기에는 대출금액의 Upper limit을 낮게 정해 Credit risk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새로운 경쟁자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 출현으로 은행간 경쟁 심화는 불가피하나, 기존 은행과는 영업범위가 달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반면 23년만의 은행 라이선스 허가는 기존 은행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 개혁의 초석이 될 전망

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발표: 중금리대출 시장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대상 현황

신청인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자본금	3,000억원	2,500억원
주요주주(지분율)	한국투자금융지주(50%) 카카오(10%) 국민은행(10%)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10%) KT(8%)
핵심제공서비스	중금리대출(빅데이터 기반) 카카오톡 기반 간편 송금 카드·VAN·PG 없는 간편 결제 카카오톡 기반 금융 비서 카카오 유니버설 포인트	중금리대출(빅데이터 기반) 토탈 간편지급결제(Express Pay) 휴대폰/이메일 기반 간편 송금 Robo-Advisor 기반 자산관리 Real-Time 스마트해외송금

자료: 금융위, LIG투자증권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주주구성

	참여기업
한국카카오은행 (11개사)	카카오(10%), 한국투자금융지주(50%), 국민은행(10%) 우정사업본부, 텐센트, 서울보증보험, 예스24, 이베이, 넷마블, 코나아이, 로엔
케이뱅크 (19개사)	KT(8%),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10%) 포스코ICT, 현대증권, KGI인시스, KG모빌리언스, 8퍼센트, 한국관광공사, 알리페이, 민앤지 브리지텍, 뱅크웨어글로벌, 압컴퍼니,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모바일리더

자료: 언론자료, LIG투자증권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전략(Two-Track)

	내용
1단계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인가 -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조기 출현 -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하는 Test bed로 활용
2단계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 - 플랫폼사업자, 핀테크업체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토록 유도 - 시범 인가된 은행의 영업추이 및 소비자반응, 향후 성장가능성, 추가 신청수요 등을 감안하여 추가 인가

자료: 금융위, LIG투자증권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행법 개정 주요 내용

관계법령	구분	내용
은행법	정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이라고 정의 물리적 영업점 설치 제한(기존 은행과의 차별화)
	은산분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한도 상향 조정: 4% → 50%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업무범위	일반은행과 동일하나, 필요 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본금	인터넷전문은행의 법규상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 대비 1/4 수준으로 규정: 1,000억원 → 250억원
시행령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및 자본비율 이내로 제한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제한

자료: 금융위, LIG투자증권

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발표: 중금리대출 시장 확대

▶ Ratings System

구분	대상기간	투자의견	비고
[기업분석]	12개월	BUY(15% 초과) • HOLD(0%~15%) • REDUCE(0% 미만)	* 단,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최종분석 이전에는 긍정, 중립, 부정으로 표시할 수 있음.
[산업분석]	12개월	Overweight • Neutral • Underweight	
[투자비율]	-	매수(88.96%) • 매도(0%) • 중립(11.04%)	* 기준일 2015.09.30까지

▶ Compliance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공표일 현재 상기 종목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아닙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는 공표일 기준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